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⑱ 전등법맥에 대한 인식과 역할

▶ 한줄 요약
고려 후기부터 한국 선법에서는 전등 법맥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 배경은 송 대에 출현한 수많은 전등사서(傳燈史書)의 수입과 함께 해동선법의 법맥에 대한 자각이 싹트면서 비롯되었다.



선종 전등법맥에 대한 시대적 자각

고려 후기부터 한국 선법에서는 전등 법맥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 배경은 송대에 출현한 수많은 전등사서(傳燈史書)의 수입과 함께 해동선법의 법맥에 대한 자각이 싹트면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일찍이 진각 혜심(眞覺慧諶, 1178~1234)이 〈선문염송〉에서 송대의 전등사서와 공안집(公案集), 선어록(禪語錄) 등에서 공안을 발췌하여 편찬한 것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다. 이들 전등법맥에 대한 인식이 한국선의 경우만이 아니라 일찍이 중국선종에서도 선종의 형성과 그 전승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1. 전등계보의 성립 조건

전등(傳燈)이라는 용어는 불조의 혜명을 등불에 비유한 말이다. 곧 스승과 제자 사이에 주고받는 붓다의 정법안장(正法眼藏)으로, 그 범위는 멀리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마하가섭을 통하여 보리달마(菩提達磨)에 이르고, 나아가서 중국선에서 정통성을 강조하는 몇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의 기관(機關)으로서 중요시되었다. 이를테면 중국선종에서는 유교사회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종문의 계승이라는 사명감을 고취하였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방식은 전등을 강조하는 전법계보를 통한 법통설의 확립, 전법게송의 확립, 인가증명의 확립 등을 창출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물증으로서 가사(袈裟)와 발우(鉢盂)의 전승을 강조하는 전통도 형성되었다. 가사를 통하여 정통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전의부법설(傳衣付法說)은 8세기 초반 조계 혜능(曹溪慧能)의 문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설인데, 이로부터 발우 및 주장자 등으로까지 확대되어 갔다. 하택 신회(荷澤神會)가 주장했던 가사의 부촉설은 남종의 전등법통설의 주장과 더불어 정법의 소재를 밝히기 위한 신물(信物)로 고안된 것이지만, 신회 이후의 중국 선종에서는 인가증명의 신물로 새로운 전통이 확립되었다. 특히 무주(無住)의 보당종(保唐宗)에서는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를 편집하여 자파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이색적인 전의부법의 전등설을 주장하였으며, 〈조계대사전(曹溪大師傳)〉 및 돈황본 〈육조단경(六祖壇經)〉, 〈보림전(寶林傳)〉 등에 계승되어 선종의 전법상승 및 인가증명의 상징으로 정착되었다. 등불의 전승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비롯되었는데, 직접 법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법화문구(法華文句)〉에 보이며, 선종에서 정법안장의 전승이라는 의미로 활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속고승전(續高僧傳)〉, 〈부법장인연전(付法藏因緣傳)〉,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 〈조정사원(祖庭事苑)〉 등에 다양하게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전등은 정법안장을 전승하는 의미로 정착되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선 전등계보가 형성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하는 조건으로는 수행과 깨침과 인가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법에 있어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이와 같은 수행 · 깨침 · 인가 · 전법의 전통은 특히 교학불교가 발전해가던 당시 중국불교계에서 선법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강조한 것이었다. 그것은 기존의 교학불교와는 다른 차별화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종의 경우 자파가 교학의 측면과는 전혀 다른 측면의 특징을 내세움으로써 선법이야말로 부처님의 정법안장의 핵심을 그대로 전승했다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것이 곧 다름이 아니라 전등의 계보에 착안한 원인이 되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의 법문은 모두 언설을 통한 방편으로서 중생의 번뇌를 제거해주는 방편으로 지제전(止啼錢)에 불과한데, 부처님의 정법안장은 실상무상(實相無相)으로서 이심전심(以心傳心) 및 이법인법(以法印法)의 도리에 의거하여 전승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처음으로 그 심법의 소유자를 마하가섭으로 제시하고 그로부터 유래하는 계보에 착수한 것이 곧 전등계보의 출현이었다.

2. 중국선종 전등계보의 출현

오늘날 접하는 중국선법의 시작은 보리달마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선법 및 선종의 계보는 달마를 초조로 확정해두고 그 정통을 누가 계승하였는가 하는 점으로 나뉜다. 이에 대한 전등사서의 출현이 바로 〈능가불인법지(楞伽佛人法志)〉 · 〈전법보기(傳法寶紀)〉 ·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 등 북종(北宗)의 전등사서였고, 돈황본 〈단경〉 · 〈보림전〉 · 〈조당집(祖堂集)〉으로 계승되는 남종(南宗)의 전등사서였으며, 기타 정중종(淨衆宗)과 보당종(保唐宗)의 정통성을 주장했던 〈역대법보기〉였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보리달마를 중국선법의 정점에 내세우고 다시 그로부터 달마의 선법을 다시 이전의 시대 곧 인도의 전법으로까지 확대하여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에게까지 소급시켜 그 정법안장을 계승했음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중국선법의 계보가 단순히 중국선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의 근원에 통해 있음을 겨냥한 것이었다. 소위 인도 선법의 계보와 관련하여 언급한 경론의 자료로는 〈부법장인연전〉을 비롯하여 〈달마다라선경(達摩多羅禪經)〉의 9조설, 〈마하지관(摩訶止觀)〉의 23조설, 돈황출토본 〈단경〉의 28조설 등이 있는데, 이후에 돈황본 〈단경〉 · 〈조계대사전〉 · 〈보림전〉을 비롯한 남종의 전등계보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들 중국선종의 전등계보의 출현 및 인가증명(印可證明) 그리고 부법전의(付法傳衣) 등은 역사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 선종에서 자파의 종지를 드러내고 보급하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고 기관이었다. 그 때문에 다분히 전법계보가 주장한 내용은 당사자가 살아 있는 현재가 아니라 당사자가 입적한 이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과거로까지 소급하여 주장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곧 과거의 행적 및 선법의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자파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끼워 맞출 것인가 하는 점이 내재되어 있다. 이로써 자파의 입장을 중심으로 정법안장의 역사적인 전승과 그 정통성을 뒷받침해주는 장치로서 선종파 자체 내에서 경쟁의 산물로 등장한 것이 전법계보였다.



조선 선종 법맥의 중심이었던 나옹선사 진영.

고려 후기 선종서 전등 법맥 중시해
전등, 정법안장 전승의 의미로 정착
중국 선법의 시작은 보리달마로부터
전등법계, 정법안장 · 불자혜명 계승

3. 한국선에서 전등법맥의 출현과 의의

한국의 선종사에서 법계의 정통성과 선법의 전승이라는 두 측면이 어느 때보다도 난립하고 있던 시기가 고려 후기였다. 이 무렵은 기존부터 고려로 전승되어 오던 법계가 소위 조계선법으로 불리는 구산문의 선법과 외국의 유학승을 통해서 전승되고 다져진 중국 임제종 계통의 선법 사이에 모종의 합일점이 필요한 때였다. 전자에 대해서는 소위 구산문 가운데 사굴산문과 가지산문의 선법 및 법계가 주류를 구성하고 있었고, 후자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4세기 초반에는 만항(萬恒, 1249~1319)과 충감(冲鑑, 1274~1338) 등 수선사 계통과 혼구(混丘, 1250~1322) 등 가지산문 계통이 있었고, 14세기 중반 이후에는 태고 보우(太古普愚, 1301~1382), 나옹 혜근(懶翁惠勤, 1320~1376), 백운 경한(白雲景閑, 1298~1374) 등을 통해서 전승되었다.

이들 사이에서 후자에 속했던 태고 보우는 원융부(圓融府)를 설치하고 기존의 구산문을 당시에 수입된 임제종지의 기틀을 통하여 통합하려고 했으며, 그 시도는 대단히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이유는 외적인 측면이었던 사회와 정치적인 이유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선종의 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뚜렷한 전등계보가 등장하지 못했다는 점과 구산문으로 전승된 선법의 색깔이 분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이때부터 국내에서 찬술된 전등사서는 5종에 이른다.

첫째로 1372년에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2권이 출현하였는데, 이것은 선종의 전등사서로서 선종 조사계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로 이 〈직지〉가 출현한 157년 이후에는 〈통록촬요(通錄撮要)〉 4권(1529)이 간행되었다. 이것은 본래 중국에서 공진(共振)이 찬술한 〈조원통록(祖源通錄)〉 24권을 송 대의 진실(眞實)이 요약하고 발췌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조선 초기의 숭묵(崇默)이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간행한 것이다. 셋째로 〈불조종파지도(佛祖宗派之圖)〉 1권은 그로부터 159년 이후(1688)에 무학 자초(無學自超, 1327~1405)가 전승했던 것을 월저 도안(月渚道安, 1638~1715)이 보완한 것이다. 이것은 선종의 종파와 법맥을 도표로 그려 놓은 절첩본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과거칠불로부터 인도 및 중국을 거쳐 고려 말기 그리고 조선 초기의 나옹 혜근-무학 자초를 거쳐 청허 휴정-사명 유정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도식으로 낱낱이 나열한 부분이고, 둘은 선종오가의 법맥을 요약한 게송 부분이며, 셋은 월저 도안 자신의 발문(跋文)이 수록된 부분이다. 내용은 선종오가 가운데 조동종을 제외한 4종을 남악의 법계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 점은 선종사에 대한 법맥의 오류로 제기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조선시대를 관통해온 하나의 흐름이었다. 넷째로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 2권 1책은 조선 후기 영조 시대에 사암 채영(獅巖采永)이 찬술한 것으로 1764년에 전주 송광사에서 간행되었다. 이것도 선종의 법맥상승에 대한 것이다. 다섯째로 〈조계고승전(曹溪高僧傳)〉 1권은 금명 보정(錦溟寶鼎, 1861~1930)이 찬술한 것으로 가장 최근의 고승전이다. 수록된 내용은 송광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승려에 대한 기록으로 보조 지눌(普照知訥)로부터 송광사 16국사, 태고 보우에서 청허 휴정(淸虛休靜) 및 부휴 선수(浮休善修)로 이어지는 태고법통의 조선시대 계보가 포함되어 있고, 송광사에 주석한 나옹 혜근과 제자 무학 자초 등 나옹계 승려, 그리고 편자가 속한 부휴 계통의 고승들이 중심이다.

이처럼 선종의 전등사서류가 처음에 출현한 이래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존속해 왔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등법계(傳燈法系)를 강조한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불교의 교학에 속하는 어떤 종파보다도 선종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만큼 전등법계는 정법안장과 불조혜명을 계승하는 명분이었고 개별적인 종파를 역사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실제적인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전등법맥의 상승(相承)은 중국민족의 오래된 정통의 존중 내지 가문의 존속과 계승이라는 대의명분이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때문에 정통의 강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방계로 취급받는 부류는 언제나 따돌림을 당하고 오래지 않아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이런 점에서 선종에서는 일찍부터 자파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력을 규합하고 대외적으로 명분을 내세우는 수단으로 법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법계를 부분적으로 가감 내지 날조하는 일조차 비일비재하였고, 나아가서 정통의 계승자라는 물증을 새롭게 창조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선종의 역사는 그 세력에 걸맞는 명분을 확고하게 다질 수가 있었다. 고려 후기는 바로 이와 같은 선종의 전등법맥에 대한 시대적인 자각이 크게 싹트는 시대였다.

〈동국대 HK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대형사찰 명품고가의 마이크와 비교시 장난감수준의 차이를 확인 후 할부구입

전화를 주시면 그 부근을 지날때 정확하게 비교만 해드림

▣ 특징 : 권하지 않음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슛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